

# 학교에서 살아남기 기간제 교사의 '고군분투'

'블랙독' 서현진

“새로운 장르 작품 도전  
라미랑과 호흡도 좋아”  
tvN 월화극 16일 첫 방송



배터랑 선생님 역의 라미랑

‘로코(로맨틱코미디)퀵’ 서현진(34)이 전혀 새로운 장르의 작품으로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 그가 주연하는 tvN 새 월화극 ‘블랙독’은 기간제 교사가 된 사회초년생 고하늘(서현진 분)이 사회 축소판인 학교에서 꿈을 지키며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를 그린다. 극 제목은 단지 색이 짙다는 이유로 검은 강아지의 입양이 기피되는 현상인 ‘블랙독 증후군’에서 따왔다.

서현진은 11일 제작발표회에서 “이 작품을 처음 봤을 때 굉장히 오랜만에 만나는 독특한 장르라는 생각을 했다”며 “학원극인데 학생들이 나오지 않고, 학원극인데 학원급 같지 않고, 학원극을 표방하는 직업극”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어머니가 초등학교 교사다. 요즘에는 선생님을 예전에 불렀던 ‘스승’의 느낌보다 가볍게 느끼는 게 현실인데, 교사들은 교사에 대한 소명 의식이 있다”고 말했다.

서현진은 또 “안 해본 색깔의 드라마라 꼭 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제작진께도 ‘아무것도 안 하는 느낌의 연기를 해보고 싶다’고 했다”며 “지금 너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서 ‘이래도 되나’ 하는 느낌 이기는 하다. ‘내가 뭘 하나’ 혼돈이 오는 시기”라고 언급했다.

“또 오해성”부터 ‘뉴티 인사이드’까지 늘 좋은 시청률을 기록했던 그는 이번 시청률 목표를 문자 “작품을 찍으면서 이렇게 내 작품이 금급해진 적이 없었다”며 “시청률에 대한 부분보다 작품 완성도가 높았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고하늘과 반대 입장에 선 정교사 박성순 역은 라미랑이 말했다.

라미랑은 “작품이 무겁기도 하고 기존에 해온 역할과 차별화된다”며 “내게도 ‘블랙독’은 도전적인 작품이다. 현실씨와의 호흡은 정말 나위 없이 좋다. 집중력에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이 작품에는 서현진, 라미랑 외에도 하준, 이창훈, 태인호, 이항나, 김정영, 맹상훈, 정해균, 박지환, 예수정, 김홍과 등도 출연한다.

연출은 ‘뉴하트’, ‘38사기동대’, ‘나쁜녀석들: 악의 도시’를 만든 황준혁 PD가, 극본은 박주연 작가가 맡았다.

황 PD는 “교사의 인간적인 면과, 우리와 같이 호흡하는 모습을 그려냈다. 기존 학원극들은 학창 시절 학생의 관점으로 교사를 바라봤다면 이 드라마는 교사가 아이들을 키워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담았다”고 기획 의도를 밝혔다.

16일 밤 9시 30분 방송.

/연합뉴스



배우 서현진이 11일 오후 서울 라미다호텔에서 열린 tvN 새 월화 드라마 ‘블랙독’ 제작발표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성추문 김건모, ‘미우새’서 못 본다

SBS 측 “추가촬영 없어”

성 추문에 휩싸인 가수 김건모를 SBS TV 예능 ‘미운 우리 새끼’에서 사실상 더는 보기 어렵게 됐다.

SBS 측은 11일 “이번 주 방송부터 김건모 분량이 없다. 추가 촬영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SBS는 ‘하차’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지만, 사실상 지난주 방송한 피양세에 대한 프리포즈 에피소드가 김건모의 마지막 분량으로 남은 셈이 됐다.

앞서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가 함께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 6일 유튜브 방송을 통해 김건모가 과거 유혹업소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후 해당 여성은 검찰에 고소장을 냈고, 가로세로연구소는 추가로 김건모의 폭행 의혹 등을 꾸준히 방송하고 있다.

김건모 소속사 측 관계자는 성 추문은



김건모

사실이 아니라며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내년 5월 작곡가 겸 목사 장욱조 씨의 딸 피아니스트 지연(38) 씨와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다. 혼인신고는 이미 했다.

/연합뉴스

# “한번은 뒤집어야 할 세상”... ‘보좌관2’ 5.3% 종영

‘유령을 잡아라’ 2.7% 퇴장

“어차피 한번은 뒤집어야 할 세상입니다.” 보좌관에서 조선 의원이 되며 본격 정치에 뛰어들던 장태준은 복수와 변혁을 꿈꾸며 돌진했다. 그리고 견고하기만 했던 현실 정치도 서서히 벽이 균열했다.

11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밤 9시 30분 방송한 JTBC 월화극 ‘보좌관’ 시즌2 마지막 회 시청률은 5.340% (이하 비시상과 유료가구)를 기록했다.

최종회에서는 장태준(이정재 분)이 끝내 송희섭(김갑수)을 무너뜨리는 데 성공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과거에도 ‘어셈블리’ 등 정치극은 있었지만 ‘보좌관’은 국회와 그 안에서의 파

워게임을 극적이면서도 세밀하게 그려내며 시청자 이목을 사로잡았다.

극을 앞장서 끌고 간 것은 역시 주인공 이정재다. 그는 시즌1에서는 노련한 수석 보좌관으로, 시즌2에서는 고비에 고비를 겪으며 성장하는 조선 의원으로 변신하며 작품이 지향하는 바를 견인했다.

한편, 문근영이 4년만에 안방극장에 복귀해 관심을 끈 tvN 월화극 ‘유령을 잡아라’는 2.7%로 아쉽게 퇴장했다.

지하철경찰대라는 독특한 배경에 추리, 스릴러, 액션, 코믹 그리고 로맨스가 복합장르를 표방한 이 작품은 문근영과 김선호, ‘선함’이 닮은 두 배우 조합은 좋았지만 장르와 달리 스토리 강약 조절이 부족해 흥행에는 실패했다.

/연합뉴스

# TV프로그램 12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50 생방송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나쁜 사랑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닥터 365 35 맛 좀 보실래요
9	30 KBS 뉴스	00 꽃길만 걸어요(재) 40 무한리필 셀러드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45 하자있는 인간들(재)	10 SBS 뉴스 20 KBC 생활뉴스 30 열린TV 시청자 세상
11	00 동행(재) 55 UHD 스테라(재)	00 99억의 여자(재)		30 고향이 보인다
12	00 KBS 뉴스 12	10 우아한 모녀(재)	00 12 MBC 뉴스 25 장애인식개선 프로젝트 우리동네 피터팬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교육청 시리즈 55 특특 보험설계
1	00 사랑의 가족 50 KBS 재능방송센터(재)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25 푸르기 식사교실 50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00 뉴스브리핑
2	00 KBS 뉴스 10 쥐라기 캡스 25 출동! 애니멀 레스큐 40 영동발달 공순이와 친구들 5 55 숲 속 친구 스토리즈			
3	10 걸어서 세계속으로 (재)	00 KBS 뉴스타임 1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0 호기심대장 카토 55 두 번은 없다(재)	
4	00 사사건건	00 누가누가 잘하나		00 네모세모(재) 55 닥터 365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2019 KBS광주연중특별기획 남도스페셜	00 도봉V-갤럭시웨폰 4호의 비밀 15 핑크퐁 원더스타 30 주간연예수첩	00 5 MBC 뉴스 25 콘텐츠 박물관 스페셜 바다의 경교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25 오매 전라도	00 전국 TOP 10 가요쇼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한국인의 밥상	50 우아한 모녀	30 MBC 뉴스데스크	00 닥터 365 05 TV블로그 폼지락 스페셜
8	30 꽃길만 걸어요	30 글로벌24 55 제보자들	55 하자있는 인간들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9	00 KBS 뉴스9			
10	00 다크 인사이드 55 더 라이브	00 99억의 여자	05 지역MBC UHD공동기획 10부작 포구만리	00 맛남의 광장
11	35 UHD 스테라 40 KBS 네트워크 특선 올댓뮤직	10 해피투게더 1~2부	05 살맛나는 세상 스페셜 25 문화콘서트 난장	50 접속! 무비월드 스페셜
12	30 KBS 뉴스 40 인간극장 스페셜	40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마이 리틀 텔레비전 V2 스페셜	45 나이트라인

# EBS1

07:00 출동! 슈퍼핑크	13:00 다크 시선	18:00 생방송 특!톡! 보니하니
07:30 뽀로로와 노래해요	13:55 발견의 기쁨 동네책방	19:00 미라클러스: 레이디비그와 블랙렛
08:00 덩동댕 유치원	14:45 다크동화 달팽이(재)	19:30 생방송 판다다
08:30 미니특강대 슈퍼공룡파워	14:55 피피루 안전특공대(재)	20:00 4남매 쇼
08:45 방귀대장 뽕뽕이	15:10 출동! 슈퍼핑크(재)	20:30 자이언트 펭TV
09:00 고고다노 공룡탐험대	15:25 트리푸름	20:50 세계테마기행 1~2부
09:15 울리 앤 로	15:55 미니특강대 슈퍼공룡파워(재)	<원랜드 로키, 일래스카 -알래스카 겨울나기>
09:30 다크동화 달팽이	16:10 예술아 놀자	21:30 한국기행
10:00 지식의 기쁨	16:25 페파 피그(재)	<겨울, 강원도의 맛 4부 -첩첩산중, 겨울이 빛어내는 맛>
10:30 한국기행(재)	16:40 덩동댕 친구들-장난감나라의 비밀	21:50 다크 시선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00 EBS 뉴스	22:45 펫하트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20 워든지 뮤직박스	23:35 발견의 기쁨 동네책방
12:00 EBS 정오뉴스	17:30 고고다노 공룡탐험대(재)	
12:10 펫하트	17:45 울리 앤 문(재)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2월 12일 (음 11월 16일 癸未) ☎ 010-9790-8237

<p>36년생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해결이 가능하다. 48년생 혼신의 힘을 경주한다면 분명히 극복 되리라. 60년생 시일을 두고 진지하게 고민한 후에 방안을 모색하라. 72년생 생 검증 되지 않았으니 서두를 필요는 없었다. 84년생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느니라. 96년생 상응하는 흐름에 내맡긴다면 무리 없이 성취한다. 행운의 숫자 : 95, 43</p>	<p>30년생 탄력적으로 대처한다면 유리한 점을 획득할 수 있다. 42년생 기교가 수의 창출의 여부를 좌우할 것이다. 54년생 방심하다가 무너질 수도 있느니라. 66년생 발전을 위한 비 판은 활력을 사기 되니 대세에 순응해야겠다. 78년생 드러나지 않은 결림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다녀야겠다. 90년생 굳은 각오로 임한다면 흥성도 사라지리라. 행운의 숫자 : 25, 63</p>
<p>37년생 뜻하는 바다로 방향을 잡게 될 것이다. 49년생 예의 주시하라. 61년생 파종을 했다하더라도 손질이 가야 결실에 이르리라. 73년생 무모함과 용기는 확연히 구분 되어야만 한다. 85년생 실제보다 더 부풀려진 것임을 참고하라. 97년생 생은 뜻까지 파악할 수 있는 해안이 절실하다. 행운의 숫자 : 37, 76</p>	<p>31년생 단순해야 집중하기에 용이할 것이다. 43년생 독창성이 없다면 식상할 뿐이다. 55년생 천 년 빛도 말 한 마디로 같을 수 있다. 67년생 지극히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판단이 서야겠다. 79년생 성사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91년생 예견되는 위험은 철저히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운의 숫자 : 87, 27</p>
<p>38년생 노력에 정비례하는 결과가 발생한다. 50년생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지혜가 필요하다. 62년생 분출구가 없다면 한계 범위에 이를 것이다. 74년생 악순환의 고리를 과감하게 끊어야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다. 86년생 언급하지 않아도 상대는 다 알고 있느니라. 98년생 상대의 입장을 고려해 주는 것이 삶의 지혜라고 볼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74, 33</p>	<p>32년생 삼반면 입장에 있는 이와 함께해야 하는 부딪히 보인다. 44년생 종합적인 설계가 필요하다. 56년생 몰라도 될 일을 알게 되어 걱정하리라. 68년생 핵심적인 부분을 이해한다면 국면을 타게 하리라. 80년생 놔두자니 거주장소럽고 버리자니 아까울 것이다. 92년생 가변적인 상황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절실하다. 행운의 숫자 : 58, 96</p>
<p>39년생 수효가 아니라 실속임을 분명히 알자. 51년생 어려워 보여도 막상 실행한다면 가볍게 해결되리라. 63년생 성 사시킴에는 아직 역부족이다. 75년생 한 번 결정된 일이 라면 그대로 추진하는 것도 무방하다. 87년생 대폭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99년생 우여곡절 끝에 가까스로 이루어진다. 행운의 숫자 : 78, 02</p>	<p>33년생 흔적만 보아도 가히 짐작할 만하다. 45년생 굳이 자 초할 필요까지는 없느니라. 57년생 이루어지고 있다. 69년생 시지미를 때고 태연하게 언행 하는 이가 보인다. 81년생 작은 흠결이 결정적인 패착의 원인이 된다. 93년생 어떠한 제안에도 능히 당해 낼 수 있으리라. 행운의 숫자 : 56, 06</p>
<p>40년생 항상 변수가 숨어 있는 법이니 쉽게 장담하는 것이 아니다. 52년생 이대로 가다가는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겠다. 64년생 있을 때 잘 지켜야지 없어도 공허하리라. 76년생 갈등에 사로잡히는 고뇌가 보인다. 88년생 지리멸 멸함을 청산하고 파격적인 진보를 보이겠다. 00년생 기대했던 바는 들어오게 되어 있다. 행운의 숫자 : 28, 39</p>	<p>34년생 재판사가 지연되고 결과가 늦추어질 수 있다. 46년생 새로운 희망을 안고 오는 이가 있을 것이다. 58년생 주관 대로 이해도 된다. 70년생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는다면 걸림돌을 만날 수 있다. 82년생 욕심을 버린다면 큰 손해를 면하게 된다. 94년생 고민만 하지 말고 말로 해야 알아듣느니라. 행운의 숫자 : 20, 70</p>
<p>41년생 현재의 처지와 분수에 순응하는 것이 맞다. 53년생 절여운 길을 뒤돌아보면 해답이 나오리라. 65년생 일단 수용하고 보는 것이 이익이리라. 77년생 핵심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전면에 나서는 형상이다. 89년생 영예를 안거나 큰 이익이 따를 수다. 01년생 점진적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35, 83</p>	<p>35년생 성의껏 협조하는 것이 맞다. 47년생 이로움이 전개 된다. 59년생 기반을 이루려는 면모이다. 71년생 아무것도 아니니 가볍게 넘겨도 될 일이다. 83년생 주변 상황에 흔들려 변동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되느니라. 95년생 임시적인 상황일 뿐이다. 행운의 숫자 : 81, 67</p>